

<읽기와 쓰기> 제 1기 독후감			
■ 분반	27	■ 학부	컴퓨터공학
■ 담당 교수	허윤진	■ 학번	20171665
■ 담당 조교	곽진우	■ 이름	이선호
■ 읽기자료	강운재, 「여성과 과학의 거리두기: 누구의 책임인가?」, 『세상을 바꾼 과학논쟁』, 서울: 궁리, 2011, pp.221~247.		
■ 독후감 제목	타자화와 관계 맺기, 성별에 따른 이분법적인 생각이 아닐까?		
■ 글의 개요	<p>1. 서론</p> <p>1) 여성과 과학의 거리두기에 대한 과학의 책임 2) ‘대상관계 이론’에 의한 남녀의 대상 관계 내면화</p> <p>2. 본론</p> <p>1) 타자화를 교감의 방식으로 보완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는 찬성한다. (1) 이성적 판단과 감성적 판단의 중요성 (2) 주목 받고 있는 교감의 방식</p> <p>2) 남녀에 따라 대상 관계 방식의 차이가 유년기부터 심리적 기저에 있다는 데는 반대한다. (1) 양육자를 어머니로 상정하는 것의 문제점</p> <p>3. 결론</p>		

※독후감은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 / 마지막에 글자 수 기입.

예전부터 현재까지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이었던 과학계에서는 단순히 여성과 과학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소원한 관계를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었다. 여성과 사회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 본 텍스트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책임 소재는 바로 과학이다.

현대 과학은 관찰자가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대상을 타자화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과학의 특징이 ‘대상관계 이론’에 의하면 여성에게 거부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유년기 때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성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남성은 대상의 타자화를 내면화하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바버라 맥클린톡’의 성공적인 연구 사례를 들면서 여성의 교감 방식이 기존 남성 중심적인 과학계가 강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본 저자의 주장이다.¹⁾ 사실, 필자는 관계 맺기와 교감의 연구 방식이 타자화하는 방식을 보완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남성에게는 타자화가, 여성에게는 교감 연구 방식이 심리적 기저에 자리 잡아서 이를 통해 남성 과학계가 여성 과학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는 반대한다.

대상을 타자화하는 것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그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므로 ‘이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반면에 교감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 애착과 관심을 가지는 것이기에 ‘감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남성 중심 과학계는 주로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했고, 객관성을 해친다고 본 ‘감성적 판단’은 지양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성적 판단’이 객관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을까?

신경의학자인 Damasio는 상황 판단이나 감정 통제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안와 전두엽’이 손상된 환자를 연구했는데, 환자가 논리적인 문제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이를 통해 인간이 어떤 대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성뿐만이 아니라 감성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실제로 대상과 교감하는 방식은 최근 들어 주목 받고 있는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 대개 기존의 학문 분야와는 달리 19세기 근대 학문으로서 체계화된 인류학이 대표적으로 교감의 방식을 사용한다.³⁾ 사례를 들자면, 세계적인 인류학자 제인 구달이 아프리카 밀림을 방문하여 유인원과 지속해서 교감을 나눈 것으로 유명하다.⁴⁾ 물론 이는 학문 분야의 특질 차이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관찰 대상과 교감하는 방식이 타자화의 방식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유년기 때부터 남성에게는 대상을 타자화하는 것과 여성에게는 대상과 교감하는 것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데 선뜻 납득할 수 없다. 저자는 이를 ‘대상관계 이론’을 기반으로 이를 설명하는데, 이론의 발달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면 정확히 자녀와 양육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⁵⁾ 그런데 여기서 양육자를 무조건 ‘어머니’라고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

1) “세상을 바꾼 과학논쟁”, 강윤재 지음, 궁리, 2011, 13장 텍스트 요약

2) “감정이 없으면 이성도 마비된다”, 신동호의 ‘발견의 즐거움’, 사이언스타임 기획뉴스, 2005.11.27

3) “인류학의 역사와 이론”, ‘세계 인류학의 패러다임’, 앨런 바너드 저, 한길사, 1장

4) 조선일보, “늘 동물과 교감하던 그녀, 인간과 침팬지 경계를 허물다”, 2015.07.30., 박영진 기자

5) “대상관계이론의 발전 과정”, 유범희 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103~104장

하지 않다. 물론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시간이 아버지보다 더 긴 것은 통계적으로 사실이지만⁶⁾, 이는 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어머니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상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과학계에서의 남녀 차별을 해소하려는 저자의 궁극적인 주장과 모순이 된다. 또한 양육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함께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양육자의 성별로 이를 판단하는 건 무리다⁷⁾.

현대 과학이 남성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여자와 과학의 소원한 관계를 해결해야 하고, 기존 과학 연구 방식이 주로 타자화 하는 것이기에 교감의 방식을 통해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남성은 대상과 거리두기를, 여성은 관계 맺기가 유년기에서부터 심리적 기저에 깔려 있었으므로 타자화 방식의 남성 과학과 교감 방식의 여성 과학을 구분 지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각주 제외 1,974자)

6)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비교”, 이영환 저, 한국아동권리학회, 국문초록 참조

7) “신의진의 아이심리백과”, 신의진 저, 56페이지 저자 의견 참조